



申바람

〈신태용〉

新바람

〈신기록〉

리우올림픽 축구대표팀 권창훈이 10일(현지시간) 오후 브라질 브라질리아 마네 가인샤 경기장에서 열린 리우올림픽 축구 C조 조별리그 3차전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8강으로 향하는 결승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 한국 축구 2회 연속 올림픽 8강·조 1위·최다 득점 최초 헤트릭 등... 14일 오전 7시 온두라스와 8강

신태용호가 대한민국 축구사에 한 획을 그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축구대표팀은 11일(한국시간) 브라질 브라질리아 마네 가인샤 주경기장에서 열린 C조 3차전에서 후반 32분 터진 권창훈(수원)의 골로 멕시코를 1-0으로 꺾었다.

2승1무로 C조 1위를 확정된 대표팀은 조 2위까지 주어지는 8강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로써 한국 남자축구는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이어 2회 연속 8강행에 성공했다. C조 1위를 차지한 한국은 14일 오전 7시 D조 2위 온두라스와 8강에서 맞붙는다.

한국 남자축구가 8강에 진출한 것은 1948년 런던 올림픽과 2004년 아테네 올림픽,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이어 네 번째다. 특히 2회 연속 8강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태용호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다양한 기록을 양산하고 있다. 세계 최다기록인 8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성공하면서 선배들의 위업을 이어나간

대표팀은 1차전에서 피지를 8-0으로 대파했다. 8-0이라는 스코어는 한국 축구 사상 올림픽을 포함한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 세계대회 최다 골 차 승리와 최다 골 득점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또한 이 경기에서 3골을 뽑아낸 류승우(레버쿠젠)는 한국 남자축구 최초로 FIFA 주관 세계대회에서 헤트릭을 기록한 선수로 남게 됐다.

오세아니아의 약체 피지를 상대로 기록을 양산한 뒤 유럽의 강호 독일과 비긴 신태용호는 '다펜딩 챔피언' 멕시코까지 꺾으면서 다시 한 번 한국 축구사에 남을 기록을 만들어 냈다.

물론 대표팀이 설정한 목표는 8강 진출이 아니다. 동메달을 딴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이어 2회 연속 메달을 획득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은 8강전 이후 2승을 더해야 이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다. 신태용호의 시선은 이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흥명보호가 기록한 동메달 이상의 성과에 맞춰져 있다.

대표팀 선수들이 리우에서 목표를 달성



하면서 한국 축구사에 길이 남을 '황금세대'로 자리매김할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일본 올림픽 축구 대표팀은 8강 진출에 실패했다.

일본은 리우 올림픽 축구 조별리그 B조 스웨덴과 마지막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했지만 같은 조 콜롬비아에 나이지리아에 2-0으로 제압하면서 최종 3위에 머물렀다. 2012 런던올림픽 3.4위 결정전에서 한국에 패해 4위에 올랐던 일본은 4년 만에 다시 메달 도전에 나섰지만,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A조에선 개최국 브라질이 덴마크를 4-0으로 꺾고 조 1위(1승2무, 승점 5점)로 8강 진출 티켓을 땀다. 덴마크(1승1무1패, 승점 4점)는 2위로 8강에 올랐다.

B조 1위는 나이지리아(2승1패, 승점 6점), 2위는 콜롬비아(1승2무 승점 5점)가 차지했다. D조 1위는 포르투갈(2승1무 승점 7점), 2위는 온두라스(1승1무1패 승점 4점)가 차지했다. 아르헨티나는 온두라스와 승점이 같았지만 골 득실에서 밀리면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연합뉴스

국가대표급 선수들 포진...조직력 뛰어나

온두라스는 어떤 팀?

한국 올림픽 축구대표팀의 8강전 상대인 온두라스는 비교적 약체로 꼽힌다. 스포츠전문채널 ESPN 등 다수의 해외 언론은 온두라스를 '조별리그에서 탈락할 유력한 팀'으로 꼽았다. 온두라스의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은 82위로 8강 진출국 중 가장 낮으며, 한국 대표팀(48위)보다도 36계단이나 처져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 온두라스 올림픽 축구대표팀은 자국 성인 대표팀 못지않은 스쿼드를 자랑하고 있다.

온두라스 올림픽 대표팀은 콜롬비아 출신 호르헤 루이스 핀투 감독이 이끈다. 그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국가대표팀 감독을 역임했다. 특히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선 코스타리카의 8강 돌풍을 이끌며 명장 반열에 올랐다.

핀투 감독은 온두라스 올림픽 대표팀 선수단을 꾸리면서 주로 한술밥을 먹고 있는 젊은 선수들을 뽑았다. 그래서 북중미 팀으로는 드물게 조직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다.

온두라스 대표팀에서 가장 눈길을 끄

는 선수는 엘비스 엘리스(20·CD올림피아)다. 그는 온두라스 A대표팀에도 선발된 최고의 유망주다.

그는 올림픽 북중미 최종예선 미국전에서 2골을 뽑아내며 올림픽 출전권 획득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포르투갈과 리우올림픽 조별리그 2차전에선 전반 1분 만에 선제골을 넣으며 골 맛을 봤다. 그는 최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에버튼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고, 스페인 다수의 클럽도 영입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별리그 알제리전에서 결승골을 넣은 안토니 로자노(23·테네리페)도 엘리스 못지않게 경계해야 할 선수다. 그는 온두라스 각급 대표팀을 거쳤고 스페인 발렌시아 2군에도 몸담았다. 어린 나이지만 다양한 경험을 쌓아 노련한 플레이가 돋보이는 선수다.

한국 올림픽 대표팀은 로자노에게 아픈 기억이 있다. 대표팀은 지난 6월 국내에서 열린 4개국 축구대회에서 온두라스와 2-2로 비겼는데, 2실점을 모두 로자노에게 허용했다.

/연합뉴스

“태극전사, 완도 전복 드시고 힘내세요”

화홍초 최경주 후배들 응원 메시지 담아 훈제전복 보내

완도군이 완도출신 최경주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골프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훈제전복을 리우 현지로 직접 보냈다. 최경주 감독의 모교인 완도 화홍초고 후배들도 응원 메시지를 직접 제작해 현지로 전달하는 등 뜨거운 응원전에 나섰다.

11일 완도군에 따르면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난 7월 1일 태릉선수촌을 방문해 활전복 90kg을 전달한 데 이어 최근 리

우올림픽이 열리는 현지에 올림픽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며 훈제전복 30kg을 보냈다.

신 군수는 원기회복과 기력회복에 탁월한 효능을 지닌 전복을 리우로 직접 보내기 위해서는 활전복 상태로는 불가능해, 장기 보관이 가능한 훈제 전복으로 보냈다고 한다.

완도군은 완도출신 프로골퍼 최경주 선수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골

프 초대감독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며, 올림픽 대표팀 선전을 기원하고 선수단의 기력회복을 위해 추진했다.

이와 관련, 최경주 감독은 최근 리우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투어를 땀 때(전복)효과를 봤다. 힘도 나고 속도 편하다. 선수들도 오늘(훈제전복을) 3개씩 먹고 더 달라고 하더라. 무엇보다 여기서 구하기 힘든 고향의 맛을 봐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전복은 타우린 성분이 함유돼 있어 원기회복과 기력회복에 도움을 주고, 필수아미노산이 많아 신경과 근육에 쌓인 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

내 신진대사 촉진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체력소모가 많은 운동선수들에게 인기가 높다.

최경주 감독의 모교인 완도 화홍초등학교 학생들도 11일부터 시작되는 골프 경기 응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모교인 화홍초등학교 한켠에 마련된 최경주 동상에서 모교 선배인 최감독이 이끄는 골프 대표팀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겨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화홍초교생들은 여름방학을 맞아 영어·과학 비전 캠프를 열고 있는 고려대학교 사회봉사단원들과 최경주 감독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만들어 현지로 보내기도 했다.

한편 화홍초등학교는 지난 2012년 골프연습장을 개장한 골프 특성화 학교다. /완도=정은조기자 서부취재본부장



최경주 감독의 모교인 완도 화홍초등학교 학생들이 11일 고려대학교 사회봉사단과 함께 최경주 선수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만들어 응원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